광주시, 27일 '오지호미술상 시상식' 연다

본상 한희원·특별상 박성완 작가 수상… 표창·창작활동비 지원

지난해 수상작가 방정아 개인전 개막도… 오지호 예술정신 계승

광주광역시립미술관은 오는 27일 오후 7시 미술관 본관 5·6전시실에서 '2025 오지호미술상 시상식'과 '2024 오지호미술상 수상작가전-방정아: 묻다, 묻다 개막식'을 개최한다.

광주시는 우리나라 최초 인상주의 화가인 오지호 선생(1905~1982)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지역미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오지호미술상'을 제정했다. 광주시 문화예술상 서양화 부문인 오지호미술상은 예술적 성취뿐 아니라 교육·사회적 기여를 이어온 예술가에게 수여해왔으며, 현재까지 본상 32명, 특별상 21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본상 수상자인 한희원 작가와 특별상 수상자 박성완 작가에게 광주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특히 본상 수상자에게 창작활동비 1000만원과 개인전 개최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상 수상자에게 500만원의 창작활동비가 지원된다.

한희원 작가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시작으로 죽음·삶·시간을 주제로 회화를 꾸준히 선보이며 양림골목비엔날레 등 지역 인문학 가치 보존에도 힘써왔다.

박성완 작가는 민주화운동부터 최근 사회적 현안까지 시대성과 회화 본연의 가치를 결합한 작업으로 평가받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과 함께 2024 오지호미술상 본상 수상자인 방정아 작가의 개인전 '방정아: 묻다, 묻다' 개막식도 열린다.

전시는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43점을 선별해 사회·여성·생태·일상 등 작업의 핵심주제를 조명한다. 방정아 작가는 리얼리즘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젠더 이슈 등 동시대 문제를 회화적으로 풀어내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올해 시상식과 전시를 함께 개최해 오지호 선생의 예술정신을 다시 새기고 지역미술 발전의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며 "30여 년간 이어진 광주시 미술상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고흥 남양리산성, 미확인 구조 새롭게 확인

치성·문지 등 핵심 유구 드러나 정비·복원 추진에 탄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남양면에 위치한 남양리산성(도 기념물 제207호)의 축성 시기와 구조를 규명하고, 향후 정비·복원 방향 설정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39일간 발굴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24년 마한문화권 조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시행됐으며, 동쪽 및 북쪽 성벽 구간의 축성법과 잔존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다.

남양리산성은 백제시대 조조례현의 중심지로 비정되는 대표적인 고대 산성으로, 그동안 군사적·행정적 기능을 겸한 지역 거점 성곽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군은 성벽의 축성 방식과 주요 시설의 배치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동안 미확인된 요소들을 밝히는 데 중점을 뒀다.

조사 결과, 성벽의 축성기법과 함께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치성(성벽 외곽으로 돌출된 구조물)과 추정 문지(출입시설)가 새롭게 드러났다. 이는 남양리산성의 전체 구조와 방어체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근거로 평가된다.

특히 치성은 성벽과 직교하는 형태로 축조된 것이 확인됐으며, 본래의 성벽 축조 이후 방어력 강화를 위해 덧대어 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축성 방식은 고흥 독치성, 광양 마로산성 등 전남 지역의 다른 산성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된다.

또한 기존에는 문지가 1개소만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문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남양리산성의 출입 구조와 성 내부 공간의 이용 체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단서가 확보됐다.

남양리산성은 동일시기에 축성된 독치성(도 기념물 제208호), 백치성(도 기념물 제209호), 한동리산성 등이 군사방어적 성격을 띤 것과 달리, 행정적 치소 기능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게 제기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 성벽 축성 방식, 치성 구조, 문지 등 주요 시설이 체계적으로 확인되면서, 남양리산성의 기능과 위상이 학술적으로 한층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마한~백제시대 유물이 출토된 성 내부에 대한 단계적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남양리산성의 구조와 기능을 더욱 면밀히 규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남양리산성의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굴조사 현장은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군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공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대한문화재연구원(061-383-71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광양중앙도서관, '굿바이 인문학 북토크' 운영

12월 8일 김경필 작가, 12월 1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강연

광양중앙도서관은 연말을 맞아 시민들의 자기성찰과 삶의 재정비를 돕기 위한 「굿바이 인문학 북토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북토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시민들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인문 분야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다.

첫 강연은 12월 8일(월) 오후 6시, 경제·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경제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김경필 작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자산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김경필 작가는 KBS 「하이엔드 소금쟁이」, MBN 「동치미」, KBS JOY 「국민 영수증」 등 다양한 방송과 강연을 통해 경제 흐름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온 전문가다. 주요 저서로는 『딱 1억만 모읍시다』, 『김경필의 1억 만드는 짠테크 가계부』, 『결국 당신은 아파트를 사게 된다』 등이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주요 경제지표를 통한 자산시장 흐름 이해 ▲과소비를 줄이고 재무 건강을 회복하는 실질적 전략 등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의 현명한 자산관리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은 12월 15일(월) 오후 2시, 전 헌법재판관이자 『호의에 대하여』의 저자인 문형배 작가가 '호의에 대하여; 호의로운 사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문형배 작가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으로, 최근 저서 『호의에 대하여』를 통해 호의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하며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호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호의의 선순환이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는가 등 다층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11월 24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061-797-386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전남농업박물관, 29일 전통 민화 자개함 만들기 체험

쌀체험실서 진행… 누리집서 70명 선착순 접수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이 점차 사라지는 전통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박물관 쌀 체험실에서 '전통 민화 자개함 만들기 체험' 행사를 펼친다.

전통 공예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참가자는 직접 민화와 전통 자개를 결합한 아름다운 장식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가족 단위는 물론 일반 참가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체험을 통해 참가자는 자개의 영롱한 빛과 민화의 다채로운 색감을 직접 경험하면서,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남도농업박물관 누리집(https://www.jam.go.kr)에서 70명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며, 참가 비용은 1인당 5천 원이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이 전통문화를 즐기고 배우는 박물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전혜정 기자